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결과

하 예 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I. 서 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3월 초 예과 과정 2년을 거치고 의학과로 진입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총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설명과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익히는 Basic Life Support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격검사(MBTT)를 실시하여 자신의 의학적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세브란스의 역사와 바람직한 의과대학 생활에 대한 강의가 있으며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검색방법과 의학정보학을 배우고 선배들의 의과대학 생활과 그 적응방법에 대한 경험담을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은 학생 선서와 실습가운 수여식이 진행되는 진입식과 다과회로 마무리된다. 2003학년도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은 총 120명이었다. 본고는 2003학년도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분

석을 통하여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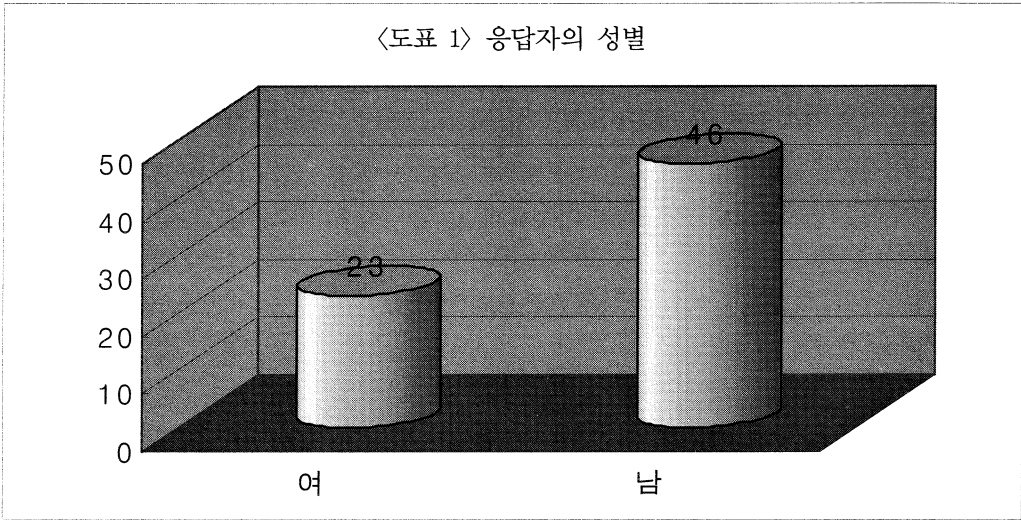
II.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결과

1) 오리엔테이션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2003학년도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120명의 학생 중 69명이 오리엔테이션 설문지에 응답하였다(60%). 설문지는 총 4개의 기초조사 문항과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의 도움 정도, 일정의 적절성, 프로그램 내용의 선호도, 참여도,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69명의 학생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23명이 여학생이었으며 46명이 남학생으로 나타났다<도표 1>.

기초조사 질문에서 학생들이 본과로 진입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진로를 묻는 문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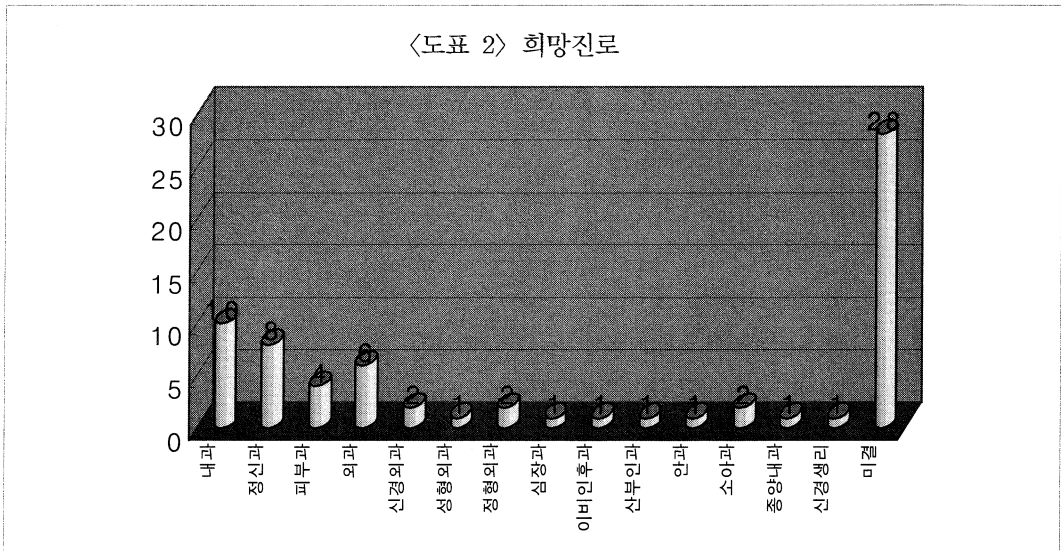
〈도표 1〉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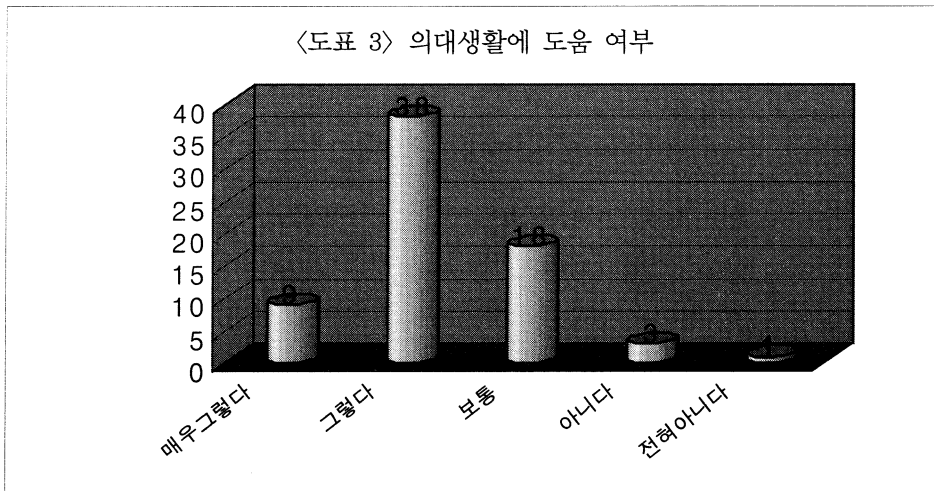


있었는데, 아직 본과에서 학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분야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41%).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임상의학 쪽을 선호했다. 그 선호도는 내과, 정신과, 외과, 피부과 순이었다<도표 2>. 기타 전공으로 신경생리를 기입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2) 오리엔테이션이 의대생활에 주는 도움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지의 첫 질문은 오리엔테이션이 의과대학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응답자의 94%는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앞으로의 의대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도표 2〉 희망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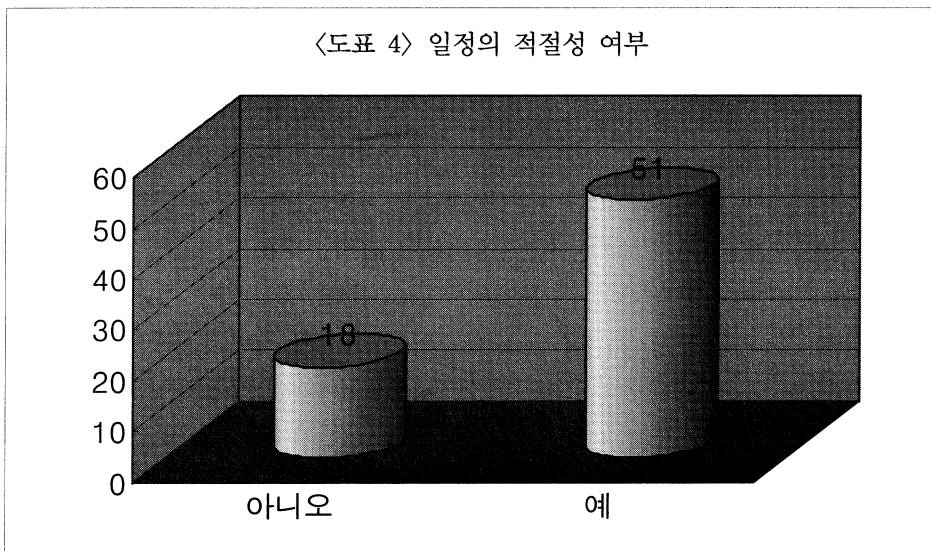


해 주었고〈도표 3〉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4명(6%)에 불과했다.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일정이 얼마나 적절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1명으로 74%의 응답비율을 보였고,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은 26%였다〈도표 4〉.

3) 오리엔테이션 일정의 적절성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03학년도 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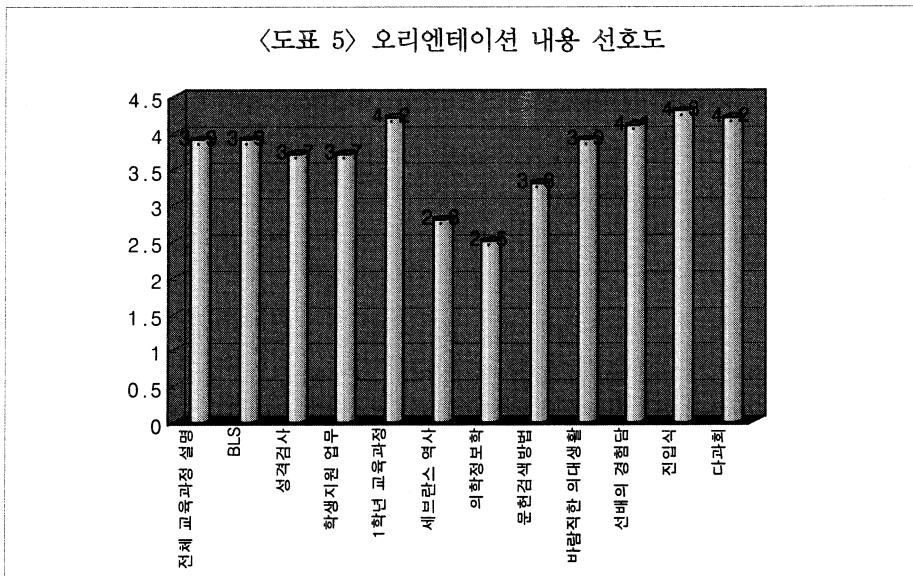
4) 오리엔테이션의 구성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추가되었다면 하는 주제나 내용을 기입해 달라는 문항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그 중 응급구조(CPR)실습 교육을 확실히 하고 Basic Life Support 과정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3명). 선배들과 교수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나누어 조언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원한다는 의견(4명)도 있었다. 재학생과 편입생 간의 소개 등 동기들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4명)이 있었으며, 각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원하는 학생(3명)과 전공 선택이나 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학생(2명)도 있었다. 기타로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실제로 둘러보는 시간, 연예인 초청, 실질적인 본과 생활이야기, 조별활동과 발표, 오리엔테이션 시기를 앞당겨 의학과 1학

년 1학기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문항은 본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흥미 있고 도움이 된 내용을 기술하라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택을 많이 한 프로그램은 Basic Life Support(30명)와 성격검사(29명)였다. 그 다음 순으로는 1학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설명(14명), 의과대학 전체 교육과정 설명(11명), 선배의 의학과 적응 경험(11명), 정보검색방법(7명), 바람직한 의과대학 생활(7명), 학생지원 업무 소개(4명), 진입식(3명), 의학정보학(1명), 다과회(1명)였다.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세브란스의 역사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Basic Life Support를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의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격 검사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많았다.

〈도표 5〉 오리엔테이션 내용 선호도



5)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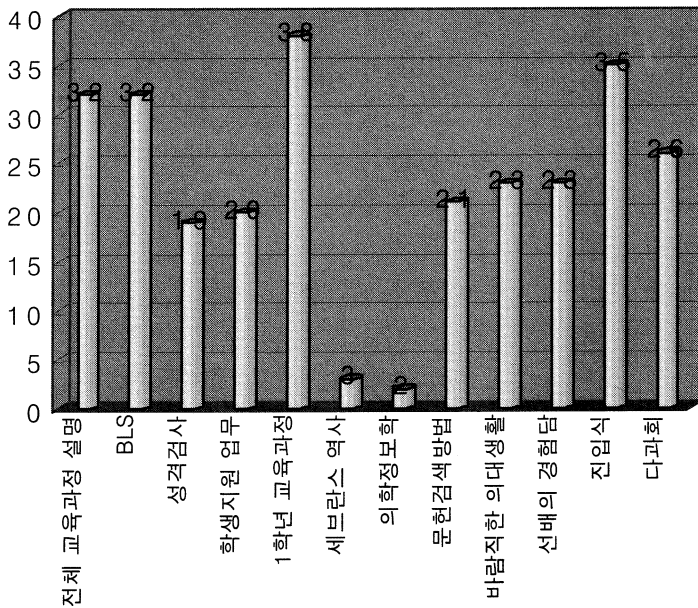
오리엔테이션의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는 내용은 진입식(4.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매우 근접한 점수를 얻은 과정은 1학년 교육과정(4.2)과 다과회(4.2)였고 선배의 경험담(4.1)도 근사한 수치를 보였다. 앞서 질문한 가장 흥미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하라는 문항에서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던 다과회(1명)와 진입식(3명)이 그 적절성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대부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세브란스의 역사와 의학정보학은 평균 점수가 각각 2.8과

2.5로 나타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 나왔다.

6) 오리엔테이션 구성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오리엔테이션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정을 선택하라는 문항에서는 1학년 교육과정 설명(38명)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 설문에 참가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과정이었다. 그 다음으로 진입식(35명), 의과대학 전체 교육과정 설명(32명)과 Basic Life Support(32명)이 선택되었다. 가장 저조한 선택을 보인 프로그램은 세브란스 역사(3명)와 의학정보학(2명)으로 나타났다.

〈도표 6〉 반드시 포함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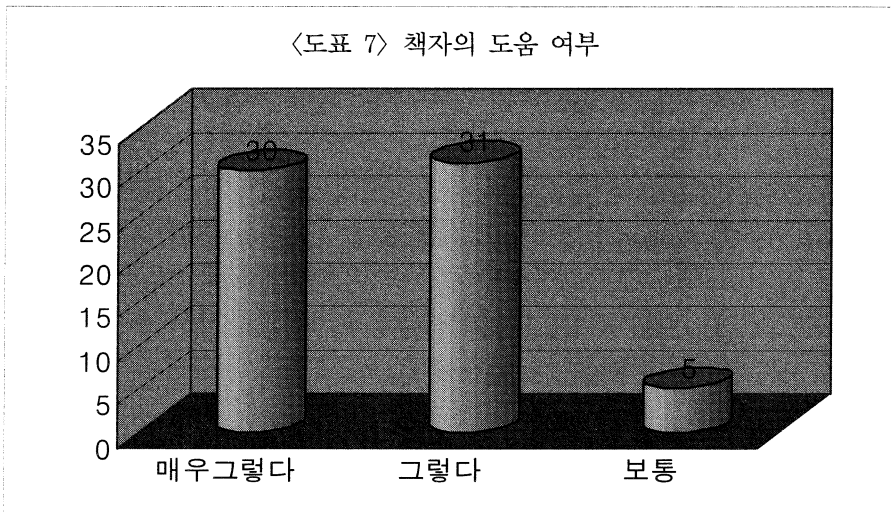
7) 선배들이 제작한 책자의 유용성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선배들이 제작한 책자는 의과대학 생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은 없었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은 45%, 보통이라고 반응한 학생은 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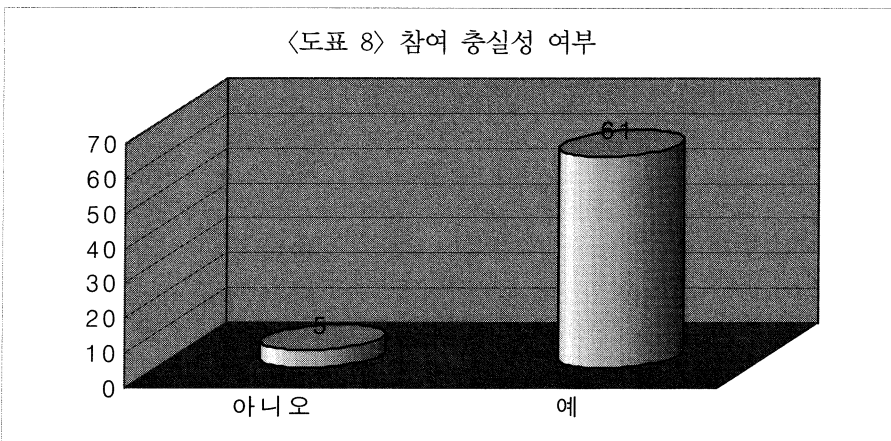
8) 오리엔테이션 참여의 충실성 여부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들이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참여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92%(61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5명(8%)의 학생들은 충실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도표 7〉 책자의 도움 여부



〈도표 8〉 참여 충실성 여부



9) 기타 건의사항

본 설문문의 마지막 질문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건의사항을 기술하라는 항목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었기에 일정을 줄이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1학기 과목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았으면 한다는 지적과 응급 소생술 실습을 직접 해보았으면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III. 종합

2003학년도 의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과에서 의학과 1학년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이 앞으로 의과대학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바 설문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2003학년도 의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의 지루함은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방안이 있다. 또한 중복되는 강의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학정보학은 의학입문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강의하는 등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느꼈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둘째, Basic Life Support(BLS)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만큼 자신들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매우 흥미로워하고 그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대처하는 방법은 의사로서 필수사항으로 알아야 하는 점도 있지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유념해야 하겠다. 따라서 작년에 실습으로 실시했던 BLS 과정을 다시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셋째, 각 전공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선배들과 교수님들과의 소그룹 대화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과로 진입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세부 전공 선택과 진로문제이다. 본 설문에서 실시한 기초조사 내용 중 전공 선호도에서 기초의학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비단 올해 학생들만이 보여주는 특징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이 의학에 대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거나 기초의학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 희망 진로 선택을 하지 못한 학생이 41%나 되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1학년 교육과정, 선배들의 경험담 그리고 선배들이 제작한 책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자신들이 앞으로 겪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배들이나 교수가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여 강의실과 실습실을 돌아보는 의과대학 견학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넷째, 동기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과는 매년 12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온다. 많은

학업량에 시달리는 학생들로서는 동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도와가며 학업해야 하는 동기생들인데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미리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일 것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성격검사와 더불어 급우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과대학도 하나의 조직이며 많은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목표하는 바를 잘 달성하려면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더불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므로 동기, 선배, 교수들과의 관계 맺음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